



전문가토론회
Experts Roundtable

북한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일 시 : 2006년 12월 26일(화) 오후 2:00~5:00
장 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주 최 : 평화재단
주 관 : 사단법인 좋은벗들
후 원 : 주한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 일시 : 2006.12.26 화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주최 : 평화재단
- 주관 : 사단법인 좋은벗들 (02-587-8996)
- 후원 : 주한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북한 식량상황은 늘 어려웠지만 특히 올해의 경우는 수해로 인한 피해와 미사일, 핵실험으로 인한 국내의 지원의 축소로 인해 '제2의 식량난'이 닥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한다는 우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므로 인해 300만 명 이상 되는 아까운 목숨을 잃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냉정하고 정확한 현실이해와 효과적이고 올바른 대처, 지혜로운 눈과 용감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각계 북한전문가를 모시고 올해의 북한의 식량상황을 진단하고 식량난의 도래, 대량아사의 가능성, 위기대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심층적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토론회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 6 북한식량 상황과 인도적 위기
법륜스님 (좋은벗들 이사장)
- 27 북한의 식량위기 대량아사로 이어질까?
강재혁 (테일리 NK 기자)
- 31 2007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2 북한의 식량위기 가능성(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김영희(새터민)
- 44 2006년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여러 견해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47 북한의 식량사정 및 전망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식량 상황과 인도적 위기(요약문)

법륜스님 (좋은벗들 이사장)

2006년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올 여름에 수해를 입긴 했지만 식량작황이 작년과 같은 평년작이라는 이야기부터 작년의 절반정도로 '제2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이야기까지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축소로 식량상황 악화는 공통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근 식량상황과 인도적 위기, 대량아사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며 근 10년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분배 모니터링의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북한은 자체 식량생산분의 배분순위와 외부지원식량 배분순위를 가지고 식량을 공급해오고 있다. 북한의 현재 인구는 2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4개의 배급순위를 갖고 있다. 당 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평양중심구역에 사는 배급 1순위 100만명, 배급 2순위는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 150만명, 특급기업소인 3순위 400만명, 4순위인 일반주민 600만명, 우선 분배받는 농민 800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배급제 시스템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4순위의 일반주민들은 배급제 시스템의 밖에서 생활해오고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유엔기준의 정상적 생활을 위해서는 640만톤이고, 현재 북한의 '정상적인 배급'에 해당되는 유엔기준의 최소량은 520만톤이며, 30% 정도의 주민에게 영양부족상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아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평년작 수준인 430만톤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는 올해 가을 생산량이 도별생산량 189만톤, 개인소토지 생산량 30만톤, 농민보유식량 10만톤, 교회소 및 관리소의 생산량 15만톤, 예비곡물 5-6만톤과 이모작 생산량 30만톤을 합쳐 총 280만톤에 그쳐 대량아사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거의 확정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약 20만톤, 국제식량계획(WFP)의 7만5천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총 307만 5천의

공급량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05년 북한정부의 공식발표인 450만톤 생산량의 60%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북한이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난으로 300만명의 아사자를 낳았을 때와 비교하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부족 상황이다.

1996년, 1997년, 1998년 당시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250만톤~280만톤 정도였고 외부에서의 수입 및 지원곡물을 포함하면 350만톤 이상의 식량이 공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명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때 내년도의 식량위기는 대량의 아사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예상되는 '제2 고난의 행군'시기의 대량아사는 1차때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식량난 속에서 장사와 폐기발 등의 운영,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친척들의 도움 등으로 내구력과 생존력이 생겼으므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식량배급제 시스템에서 제외된 4순위 사회계층 중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경작지가 없거나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식량문제에서의 취약계층'에서부터 식량부족으로 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대량아사가 시작될 것이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량아사는 징후가 나타날 때 대응하면 수십만명 이상의 아사를 방지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07년도 대량아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만톤 이상의 외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올해 가을 생산분 + 내년 이모작 + 외부지원 150만톤 = 430만톤은 아사를 방지할 최소량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50만톤, 한국 50만톤, 중국 20-30만톤, WFP 등 국제기구 30만톤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2월 초 워싱턴 방문시 미국무성 아시아태평양 캐서린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상황만이 고려된다. 6자 회담이나 UN 제재와는 무관하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만 허용된다면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또 USAID 존 브라운스 정책담당관도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모니터링만 허용한다면 50만톤 이상의 대량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도 북핵 등 정치, 군사적 이슈에 매달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외면한다면 1995-1998년의 대량아사보다 더한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도 인류의 일원으로서 생존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아사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며 북한정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 식량수확량, 식량부족량 등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여 이 대량

아사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이 단순한 자연의 원리를 저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 어떤 이념, 사상, 종교, 철학, 주의, 주장을 내걸더라도 그것은 헛된 망념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식량 상황과 인도적 위기

법륜스님 (좋은벗들 이사장)

I. 들어가며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식량작황이 작년과 같은 평년작이라는 이야기부터 작년의 절반 밖에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축소로 식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예견하고 있음.

북한 내부에서는 엄혹해진 국내외 정세와 식량부족으로 '제2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에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과 같은 대량의 탈북행렬을 막기 위해 국경단속도 전에 없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갑작스러운 식량난으로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90년대 중반과는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음. 10여년의 세월 속에서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며 폐기물 경작, 장사 등 자구적인 노력으로 식량난에 대한 내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리라는 위안을 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제 2 고난의 행군은 북한정부의 식량 정책의 실패와 북한주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이에 따른 민심의 이반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내부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올해 가을 추수 이후에도 앞으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견되어 시장에서의 쌀가격이 1100원대까지 오르고 있어 전년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의 최근 식량상황과 인도적 위기, 대량아사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대비되어야 함.

II. 북한의 식량 생산과 분배 체계

1. 북한의 식량생산 실태

(표-1) 북한의 식량생산 실태 “1961~2003” 1)

연도	북한발표	한국(통일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연도	북한발표	한국(통일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1961	483.0	-	358.3	1982	950.0	599.6	603.3
1962	500.0	-	372.5	1983	-	578.5	618.4
1963	500.0	-	405.4	1984	1000.	626.7	656.0
1964	500.0	-	421.2	1985	-	-	633.2
1965	452.6	354.8	370.7	1986	-	-	711.4
1966	440.5	-	407.3	1987	1000.0	-	662.8
1967	511.0	-	378.8	1988	-	-	637.1
1968	567.2	-	366.2	1989	886.0	-	659.4
1969	-	-	437.8	1990	900.0	481.0	586.6
1970	-	466.4	436.5	1991	890.0	443.0	540.5
1971	350.0	-	449.9	1992	880.0	427.0	497.3
1972	390.3	-	430.9	1993	900.0	388.0	459.3
1973	534.4	-	481.5	1994	708.0	413.0	495.1
1974	700.0	-	506.8	1995	349.0	345.0	424.5
1975	770.0	495.3	523.2	1996	250.0	369.0	448.0
1976	800.0	503.2	535.1	1997	268.0	367.0	266.0
1977	850.0	502.9	570.8	1998	283.0	393.0	347.0
1978	780.0	498.8	557.8	1999	428.0	422.0	348.0
1979	900.0	517.7	576.6	2000	-	358.0	292.0
1980	900.0	398.2	504.2	2001	-	395.0	354.0
1981	-	563.9	579.9	2002	-	413.0	387.0
				2003	-	-	415.6

※ 북한 발표치는 1995년 이전은 조곡기준이며 1995년 이후는 정곡 기준임. 식량은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잡곡을 합한 수치이며 조곡 기준임.

출처: 연도별 김일성 신년사, 『조선중앙연감』, 각년도; FAO, Production Yearbook,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남북한 영농기반 분석과 생산능력 비교』, 통일원, 1977;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각년도;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각년도; 『북한의 농업생산능력평가』 농촌경제연구원, 1983

1) 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2004, pp. 33

◆ 북한 식량생산 통계의 허수

- 1973년까지의 북한발표는 농업위원회에서 올린 자료이기에 북한발표 그대로 신뢰도를 줄 수 있음.
- 1973년까지의 생산량과 1974년의 생산량은 무려 165.6만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1974년부터는 매해 50만 톤에서 많게는 120만 톤까지 증가하였음. 그 이유는 1974년 이후부터는 김정일위원장이 당사업을 집행하게 되면서 생산량의 허수가 많아졌고 1980년대의 6차 당대회부터는 당 선전부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대외선전용으로 통계를 부풀려 발표하게 된 것 같음.
- 1974년부터 1994년까지의 북한발표는 한국 통일부와 국제식량농업기구의 발표량과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당시의 생산량 발표는 신뢰하기가 어려움.
-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식량생산 통계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에너지 공급 감소, 1995-1996년의 큰물피해, 냉해 등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은 북한통계에서도 현실적 수치로 표현됨²⁾. 오히려 1996년의 경우는 통일부나 FAO가 북한정부 발표보다도 119만톤, 198만톤이나 더 많이 잡고 있음.

2. 북한의 총 경지면적

◆ 경지면적

- 현재의 총 경지면적 180만 정보 중 곡물생산 농경지는 130만 정보로 추산.
- 1980년대 6차 당대회까지는 경지면적은 200만 정보에 이룸.
이후 건설 등으로 인해 총 경지면적 축소, 2000년대 들어와 논 60만 정보(물대기가 어려운 논 5만 정보), 폐기밭 등의 확대로 밭70만 정보³⁾에 이룸. 기타 남새 과일 생산 등의 50만 정보로 총 180만 정보

3. 정보당 생산량 추이

◆ 1980년대까지의 정보당 생산량

- 논은 정보당 평균 4톤 생산, 최고 250만톤이 생산됨. 옥수수는 정보당 3톤-4톤, 210만톤까지 생산. 총 460만톤 - 500만톤까지 생산됨.
- 당시는 식량이 약간 부족하나 굶지는 않음.

◆ 1980년대 이후 식량증산을 위한 노력

- 6차 당대회(1980년)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자신만만하게 나갈 때. 10대 전망 목표 설정. 당대회 이후는 식량생산목표를 1000만톤 잡음.

2) 북한 고위층 탈북자는 1990년도부터는 비료생산이 되지 않으면서 실제 생산량이 4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함. 아주 농사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450만톤 정도로 봄.

3) 이중 토지산성화와 비료가 대규모가 필요한 불완전한 폐기밭이 10만 정보에 이룸.

- 식량생산 목표의 상향조정

당시 논에서 정보당 평균 4톤이 생산되나 추가적인 비료 공급과 밭의 산성화를 예방하여 경작한다면 정보당1톤의 추가 생산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류안비료와 칼리비료를 증산하고 15마력의 트랙터의 마력수를 75마력까지 높여 땅갈이를 깊이 25cm로 한다면 충분히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 이럴 경우 1980년대까지 200만 정보 중 정보당 5톤의 생산으로 벼 수확량은 400만톤 이상 생산, 옥수수 400만톤 이상 생산, 이모작을 한다면 충분히 1000만톤 생산은 숫자적으로는 가능.
- 이를 위해 총 비료필요량은 210만톤으로 산정(북한비료는 한국비료보다 질소량이 낮음)

◆ 생산량 확대를 위한 비료증산 및 설비보수, 실패

- 생산량 증대를 위해 비료생산과 트랙터 및 설비 개량 등을 과제로 제기

초기 남흥화학에서 요소비료가 연간 60톤 생산, 흥남비료의 경우도 1960년대의 경우는 최대생산량 160만톤까지도 생산공급, 이후 설비의 노후화와 부식된 설비들의 복구를 위한 대형화 과업 제기됨. 낡은 설비를 뜯어고치고 대형화했으나 개조과정에서 실패, 1990년대 들어서면서 원유 공급이 없으면서 실제로는 10만톤도 생산이 어려워짐.

- 낮은 질과 압축기의 압력부족과 강산성으로 인한 파이프 부식 등으로 공장설비가 파철이 됨. 전 기문제만이 아니라 설비문제도 있어 목표달성은 실패하게 됨.
-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음. 목표대로 생산량 발표는 지속됨

◆ 북한의 곡물생산량 중 지역에 따른 비중

-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의 생산량은 전체 곡물생산량의 80% 차지.
- 비료투입여부에 따라 곡물 생산량의 차이 발생. 비료가 공급된다면 쌀은 정보당 4톤까지 생산, 비료가 부족할 때는 2.5톤 정도 생산.
- 현재 곡물생산량 정보당 2톤-2.5톤, 최고 3톤 생산.

4. 북한의 식량 수요량

◆ 현재 인구 2천만명으로 추정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2300만명으로 인구수를 말하나 2001년 북한 인구 조사시 1700만으로 조사됨. 식량난으로 인한 사망자수 300만명과 조사시 유동인구 200-300만명은 통계에 잡히지 않음. 현재 인구는 실제로는 2000만명으로 추정.

(표-2) 식량수요량

용도		추정기관			비고
		통일부	세계식량계획	미국농무성	
인구(천명)		23,165	23,943	23,113	연도 중간인구
용도별	식용	5,143	3,998	3,860	기타-조기수확, 수확후 손실 15% 및 기타용도 3%
		2,130kcal (정상에너지 섭취 1일 권장소요량)	1,600kcal (UN권장 1일 최소에너지의 75%)		
	사료용	300	180	180	
	종자용	230	230	230	
	기타	810	810	810	
	합계	6,483	5,218	5,08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2006.7(제 8권 제 2호), pp. 20 참조
 정상적으로 공급하면 650만 정도 필요하나 최소 소비량으로도 500-520만 톤 정도 필요함.

◆ 북한 식량수요량

- ① UN권장 정상에너지 섭취기준 또는 북한 정상 배급 기준 - 640만 톤
- ② UN권장 최소에너지 섭취기준 또는 북한의 절약 배급기준(사실상 정상기준)- 520만 톤
- ③ 취약계층(30%)은 영양실조 상태이지만 아사자는 없음 - 430만 톤
- ④ 대량아사 발생 - 350만 톤 ~ 430만 톤

◆ 평양시 배급량

- 60년대 제1순위 1일-800g
- 70년대 1일 -700g
- 70년대 이후 평양시는 쌀:잡곡 비율이 7:3, 지방은 이와 반대로 쌀: 잡곡비율이 3:7
- 80년대 군량미, 애국미 제외하고 600g
- 90년대 470g, 물론 쌀표는 700g해당 실제배급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470-500g

- 현재는 인구계층별 식량공급량은 급수별로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700g공급대상도 하루 한 끼 158g(700g에서 절약미를 제하고 나면)씩 하루 세끼에 474g밖에 안됨. 지금은 배급을 타는 사람들에 한하여 급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률로 하루에 500g씩 한달에 15kg 정도 공급.

- 중심구역의 평양시민은 100만명을 약간 초과(주변 구역⁴⁾ 제외) 하루 1천톤을 소비. 1년이면 36만톤 소비(식용 및 빵, 과자류 포함, 호텔, 식당 등 외빈집대식량 포함)

평양시민 소비량과 무력부(호위국, 안전부 제외시) 소비량 비슷.

평양시민과 군대의 식량배분량은 농업위원회에서 무조건 집행해야함. 언제든지 이들 식량은 확보하고 있음.

예를 들어 쌀 100만톤 생산할 때 평양과 군대에 70만톤 분배, 나머지 부분에 30만톤 분배, 쌀 150만톤 생산시 평양과 군대에 70만톤, 나머지에 80만톤을 분배함. 평양시민과 군대는 70만톤이면 풍부하지는 않으나 먹을 수는 있음.

5. 북한의 식량 배분 순서

- 자체 식량생산 배분순위

- 1위 : 당 중앙기관, 각 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평양 중심구역 인구
- 2위 : 군대를 포함한 기타군사인원⁵⁾
- 3위 : 특급기업소(2경제군수생산)
- 4위 : 시군 량정사업소

- 외부지원식량 배분순위

- 1순위 : 특별지정대상⁶⁾, 평양시민
- 2순위 : 군대를 포함한 기타군사인원
- 3순위 : 특급기업소
- 4순위 : 시군 량정사업소

4) 평양 중심구역과 주변구역

평양중심구역(11개 구역)	평양 주변구역 지역(7개구역과 4개군)
대성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형제산구역, 보통강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사동구역, 역포구역, 낙랑구역, 삼석구역, 용성구역, 순안구역, 승호구역 /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강동군
인구 100만 명	인구 150만 명(이 중 50만명 농민)

5) 군대에 들어가는 식량은 북한의 자체 생산식량으로 기본적으로 우선 분배하므로 공급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음. 외부지원식량을 지원받을 때는 부족한 식량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짐.

6) 외부 지원 식량은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함.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식량의 대상은 항상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수해 지역에 모두 들어갈 수도 있고 군대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음. 신의주지역이 식량이 부족하면 신의주에 들어갈 수도 있음. 중앙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곳이 결정되어있는 것은 아님. 이는 일상적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짐. 따라서 한국에서 지원하는 식량이 모두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음.

14 북한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 인구별 배분량

- 1순위

당 중앙기관, 각 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평양 중심구역(100만명)

- 2순위

군대를 포함한 기타군사인원(150만명)
: 인민무력부(110만명),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작전부, 호위사령부 등

1, 2순위의 해당하는 인구층은 250만명으로 이들의 경우는 배급시스템에 속하는 핵심인구층. 인구 12%에 해당. 평양시민 100만명과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 150만명은 농업위원회에서 식량공급을 무조건 보장함. 평양시민은 년 36만톤⁷⁾,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은 1년 36만톤이 확보되어야만 함.

이들 계층의 소비량은 식용 한끼 200g×3=일일 600g / 250만명×일일 600g×365= 년 55만톤과 이외에도 식당, 과자, 술, 호텔 등 대외사업을 위해 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70만톤 이상의 식량이 보장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는 유엔의 권장치로 계산해서 640만톤 이상이 생산되었을 때만 농업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작년 450만톤 생산을 고려한다해도 이들 1,2순위가 확보해야 하는 식용 식량은 정량에서 10만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갈 때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족분 10만톤이 지급될 수밖에 없음.

- 3순위

군수공장 50만명(약150개×평균 3300명)×5인가족 = 250만명
특급기업소 30만명(1개 특급기업소당 3만명×10개)×5인가족 = 150만명

- 군수공장 : 250만명 34만5천톤(배급 400g 배분 : 쌀30%, 옥수수 70%)
- 특급기업소 : 150만명 21만 9천톤(배급 400g 배분 : 옥수수 100%)
옥수수 대신 감자로 지급하기도 함(감자의 경우는 감자 4kg을 옥수수 1kg로 계산함)

7) 평양시민 100만명은 중심구역의 인구를 말하며 식량과 과자, 빵을 포함하여 1인 1일 1kg로 계산.

- 4순위 배분

일반노동자(일반기업소, 노동자, 교사, 의사, 서비스직 종사자) 600만명

4순위에 해당하는 일반노동자 및 가족 600만명은 실제 배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배급과는 상관없이 생활. 이들의 곡물확보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짐. 이들 중 일부는 장사를 통해 상층보다도 잘 사는 경우도 있음.

◆ 농민인구

배급대상에 속하지 않는 농민인구 800만명. 이들은 1년 200kg를 분배해줌. 원래는 1년 250kg 보장했음. 그러나 수해지역이나 피해손실을 입은 지역의 경우는 농업생산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분배에서 보장을 못받음. 이 경우 외부지원이 있으면 특별지정대상이 됨. 그러나 외부지원이 없으면 생존위기 지역임.

◆ 배급시 발생하는 문제

- 분배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식량공급과 수요에서의 차이로 실제로는 분배순위와 동일하지는 않음. 하층의 장사하는 사람 중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배급에 의지해서 사는 상층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배급의 량과 질의 관계

양질의 외부지원식량이 있을 경우 1,2순위에겐 먼저 10만톤 가량 배분이 되어짐. 이는 1,2순위의 경우에도 식량이 10만톤 정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선 지원이 됨.

그러나 질이 떨어지고 양이 확보된 경우는 절대량이 부족한 3순위에 우선 배분됨. 그리고 이중의 일부는 시장으로 흘러들어감. 한국에서 지원하는 쌀은 햅쌀이 아니라 3,4년 묵은 쌀이므로 밥맛도 없으며 한국쌀의 경우 도정을 많이 하여 보기에 하얗고 깨끗해서 좋으나 맛이나 영양면에서는 북한산 쌀에 비해 질이 떨어짐. 사실상 고위관리가 먹지는 않음. 간부급들의 경우는 북한 자체 생산물을 소비. 한국에서 지원한 쌀의 경우는 일반주민이 먹기에 적당한 쌀임.

◆ 군량미 전용 가능성의 문제

군대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임. 군대를 비롯한 군사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량은 36만톤 정도면 해결가능. 자체 식량생산으로 군대배급은 가능한 상태임. 그러나 흉작으로 군대에 36만톤 이상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그 부족분만큼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일부 군대가 불법적으로 곡물을 전용하는 경우는 있음.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대의 식량배급은 보장하면서도 군관가족의 생계는 보장이 어려운

상태임. 하급 군관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월급으로 부족하며, 월급 이외의 현금확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음. 따라서 가족이 있는 군관의 경우에는 가족부양과 아이양육, 현금수요를 위해 군대의 식량을 시장에 빼돌리게 됨.

또한 국가경제의 붕괴로 인해 그런대로 주식인 식량은 공급하나 부식의 경우는 부업지를 경작하거나 자체조달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업기지가 없고 간장, 된장, 소금을 먹기 위해서는 지원받은 쌀을 떼어다가 시장에 팔거나 해서 찬거리나 양념류를 구매해야 함. 이런 과정으로 군대에 지원한 식량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하급 군인들의 식량은 부족하게 됨. 따라서 하급 군인들에게까지는 식량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아 군인들의 영양실조나 허약상태가 발생함. 하급 군인들의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인 것을 수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평양 우선공급 및 모니터링 문제

평양의 경우는 대부분 황해도에서 식량을 가져옴. 그러나 운송수단과 유류 확보 등의 운반문제로 사실상 운반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근거리인 평양과 황해도 지역의 경우에도 그렇기에 다른 여타의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태임. 한국 지원쌀보다 북한산 쌀이 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황해도쌀을 선호하나 현실여건상 운반문제 등 한국지원쌀을 더 많이 접하게 됨.

항구와 지역의 거리가 먼 경우는 운송수단과 유류를 확보하기 위해 바로 지원받은 물량을 어느 정도는 현금이나 현물로 바꾸어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원한 쌀이 바로 시장으로 흘러가는 이유임. 이 때문에 지원받은 물량을 가져가고 싶어도 실제로는 운반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거나 일부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평양에 지원쌀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모니터링이 용이하기 때문임. 대북지원식량에 대한 분배모니터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효과적인 평양을 선택하게 됨.

이를 통해 볼 때 국내외 사회가 제기하는 분배모니터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파견과 감독도 중요하지만 지원물량을 지원할 지역의 근거리까지 운반해주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남포, 해주, 함흥, 청진, 원산항 등으로 분산지원을 하여 운반거리를 줄여 수송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함.

III. 2006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

1. 2006년 식량 생산량 추산

◆ 올해 총식량 생산량 280만톤으로 추산.

(표-3) 2006년 식량생산량 추산

용도별	구분	생산량	비고
2006년 가을 생산량 (250만톤)	도별 생산량	189만톤	9개도 2개시의 생산량. 올해의 경우 홍수피해로 주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의 식량 생산량이 작년의 60%수준임
	개인소토 지 생산량	30만톤	국가가 6개월분 식량해결위해 기관기업소에 준 소 토지에서 나온 생산분 ⁸⁾
	농민소유 식량	10만톤	농민이 몰래 간직한 식량. 160만 가구× 60kg =9만6천톤
	교화소 및 관리소 생산량	15만톤	인민보안성 산하 교화소 및 관리소에서 생산한 량 (20여개)
	예비곡물	5-6만톤	
이모작생산량		30만톤	이모작 생산량 ⁹⁾ 48만5천톤(밀,보리 23만톤, 감자 26 만톤으로 추정) 이중 감자는 북한에서 배급량으로 계 산할 때는 1/4로 계산함. 6만5천톤 계산
총식량생산량	합 계	280만톤	

◆ 2006년 북한의 식량 소비량 추산

(표-4) 2006년의 식량생산량(280만톤)을 감안한 곡물 소비량 추산

식용	248만톤	가을생산량과 이모작 생산량 중 식용은 최소의 사료 및 종자용 제외하고 가용가능
사료 및 종자	32만톤	사료 9만톤/ 종자 23만톤 (식량생산량이 적음에 따라 공업용 배분은 이루어지 기 어려움. 사료도 당 고위층용으로 최소계산)

8) 지방의 기관기업소(행정위원회, 인민위원회, 교원이나 병원 등), 지방 산업의 공장 등도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
서 6개월 식량을 해결하라고 땅을 배분. 여기 해당하는 인구를 약 300만으로 추산, 1인당100kg를 생산한다고 추산.

9) 권태진, "2007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2006.12.26 토론회 원고내용에서 인용.

◆ 식량부족의 원인

올해의 수확량은 토지의 비옥도가 낮아지고 비료 농약부족, 수해 피해와 가뭄으로 식량 생산량이 대부분 작년도의 60% 수준밖에 안됨. 2005-2006년의 경우 전년도 농사가 잘 된 데다가 수해 후 한국의 지원 때문에 가을까지 유지할 수 있었음.

그러나 2006-2007년의 식량생산량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가 함경남북도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음. 이는 황해남도, 평안남북도, 강원도가 올해 수해로 알곡생산이 60%로 감소되었기 때문.

- 식용으로 가능한 식량생산이 350만톤 정도가 되면 위의 표처럼 1,2순위와 3순위까지도 식량문제는 내구력이 강한 북한주민들에게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견딜 수 있음.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식량 및 비료가 지원된다면 식량가용범위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다행히 북한 식 '정상배급'을 할 수 있었음. 그러나 내년의 경우 올해의 생산량과 국내외적인 대북지원량의 감소로 대량아사의 위기 예상됨.

특히 1순위라 하더라도 1일 500g밖에 먹지 못하고 2순위 군대의 경우도 1일 500g을 배급받고 그나마 배급이 유지되던 군수공장과 특급기업소의 경우에는 영양실조 상태인 1일 250g밖에 먹지 못함. 이런 경우에 일반주민들에게 돌려진 식량은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아무리 한국이나 외부 지원이 있다해도 그것이 50만톤 이하의 소량일 때는 일반주민에게까지 식량분배가 이루어지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IV. 외부 지원과 식량난의 함수 관계

1. 식량생산 부족과 대량아사의 가능성

북한 곡물생산량이 280만톤일 경우 배급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1,2순위와 농민을 제외하고 특급기업소와 군수공장의 3순위 대상조차 하루 250g의 식량공급도 되지 않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절 공장노동자가 대량아사에 이르렀던 것은 공급부족으로 인함. 마찬가지로 280만톤 생산시는 절대적 식량부족으로 3순위의 400만 인구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지고 4순위 대상 600만 인구는 대량아사 위험에 노출됨.

물론 이들 중 개인장사, 소토지 생산 등으로 자체적으로 생존력이 있는 50만명과 그 가족 200만명은 살아남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400만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대량아사 위험에 처함.

- 430만톤 생산시 - 3순위 400만 주민은 영양부족 상태가 되고 4순위 600만 주민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처함

- 280만톤 생산시 - 3순위 배급대상 인구 400만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고 4순위 일반주민

600만 중 400만 인구는 대량아사의 위기에 처함. 식량확보를 위해서는 농장을 수탈하거나 상층에서 흘러들어오는 시장판매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대량아사의 위기

2.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 상황과 사망자 수 비교

(표-5)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외부도입량, 당시 사망자수 비교

(단위: 천 톤 / 천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식량생산량 ¹⁰⁾	3,490	2,500	2,680	2,830	4,280
외부도입량 ¹¹⁾ (FAO)	980	1,070	1,440	1,490	1,190
외부도입량 (한국정부) 북한내	960	1,050	1,630	1,030	1,070
식량공급량 ¹²⁾	4,450-4,470	3,550-3,570	4,120-4,310	3,860-4,320	4,450-5,470
사망자수 ¹³⁾		651	1,704	549	

※ 고난의 행군시기는 빠르기는 1992년부터 배급 중단되어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 98년 말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수가 줄어들기 시작, 99년에 이르러 큰 폭으로 줄어들고 2000년에는 아사자 발생이 중단되는 것은 외부의 지원이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멈춘 것으로 보임. 그 외에도 사망으로 인한 인구수가 조절이 된 측면과 주민들이 대량아사 속에 자생력과 내구력을 갖추게 됨.

해당연도의 식량공급량이 다음 해의 사망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10) 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2004, pp. 33 남성욱의 통계치에서는 북한이 발표한 식량생산량을 인용. 이는 당시 FAO와 한국정부의 통계치와 북한의 생산량의 차이가 크고 식량난으로 인한 외부원조를 위해 북한이 생산량을 축소했다고 감안하더라도 FAO와 한국정부의 추산치는 지나치게 높음.

11)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2005, pp. 182 외부도입량에는 북한의 수입량과 원조곡물을 포함함.

12) 북한내 식량공급량은 북한 식량생산량과 외부도입량(FAO와 한국정부의 통계)을 합산한 결과임

13) 좋은벗들, 사람답게 살고 싶소, 정토출판, pp. 192의 사망자율을 당시 전체 추산 사망자수 300만명에 대비하여 사망인구수를 추정. 무응답 1.5%은 4만5천명, 전체 사망자수는 300만명.

당시 좋은벗들은 1995년 8월부터 1998년 9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1,855명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대상자 가족구성원의 총수와 가족 중 사망자수를 비교, 가족사망률은 29.5%로 밝힘. 6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은 51.2%로 나타남.

사망년도를 볼 때 1996년보다는 1997년도에 사망자수가 월등히 증가하였고 연령별 사망년도를 보면 50대까지 1997년에 사망자수 급격히 증가하나 60대 이상은 오히려 사망자수가 줄어듬. 60대 이상의 노년층 사망은 1997년도 이전에 이미 상당수 진행됨.

지역적으로도 함경북도에는 1995-1997년도에 사망률이 높아지다가 1998년도부터는 사망률 급감. 황해도, 평안남북도에는 1996-1998년도에 가면 사망률이 높아져 기아는 동북부 지역에서 서남해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임.

당시 사망자의 전체 사망원인 중 아사는 38.8%로 조사됨. 사망년도별로는 1996년에는 아사가 질병사보다 비율이 높으나 1997년에는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1998년도에는 질병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아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질병사망률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조사. 높은 질병사의 원인은 첫째, 기아 둘째, 의약품 부족, 셋째 위생관리(식품, 식수의 오염)와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이었음. 연령별 사망원인은 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아사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 이었고, 40대 이상의 경우는 질병에 의한 사망률, 20대는 기타 사망률(사고, 자살 등)이 높게 나타남.

외부도입량(수입 및 원조곡물)을 모두 포함할 때 최소 430만톤 이상의 식량이 공급되어야 아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식량공급량이 430만톤 이상이 되어야 아사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임

3. 외부 지원과 식량난의 함수 관계

올해의 식량생산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인도적 지원의 양을 파악해보자.

(표-6) 북한 생산 식량의 배분순서와 외부지원 식량의 배분순서

(단위: 톤)

용도별 량 분배량	총곡물 생산	280만톤 (2006년생산량)	외부지원 50만톤 ¹⁴⁾ (옥수수)		외부지원 100만톤 (옥수수 100만)		외부지원150만톤 (쌀 50만/옥수수 100만)	
		외부지원 없음	총공급량	지원량	총공급량	지원량	총공급량	지원량
북한내 식량공급량		280만	330만	(50만)	380만	(100만)	430만	(150만)
상태	대량아사 위기(800만)		심각한 영양실조와 아사위기(400만)		심각한 영양실조와 일부아사위기(200만)		영양부족상태 아사없음	
식 용	1순위 (100만명, 5%)	18만2천 (1일500g)	18만2천	0	21만9천 (1일 600g)	(3만7천) (+100g)	21만9천 (1일 600g)	(3만7천) (+100g)
	2순위 (150만명, 7%)	27만4천 (1일500g)	27만4천	0	32만8천 (1일600g)	(5만4천) (+100g)	38만3천 (1일 700g)	(10만9천) (+200g)
	3순위 (400만명, 20%)	36만5천 (1일 250g) 6개월치	58만4천 (1일 400g) 9개월치	(21만9천) (+150g)	73만 (1일 500g)	(36만5천) (+250g)	73만 (1일 500g)	(36만5천) (+250g)
	4순위 (600만명, 30%)	21만9천 (1일 100g) 3개월치	43만8천 (1일 200g) 5개월치	(21만9천) (+100g)	65만7천 (1일300g)	(43만8천) (+200g)	87만6천 (1일 400g)	(65만7천) (+300g)
	농민 (800만명, 40%)	144만 (년180kg / 1일493g)	144만	0	144만	0	160만 (1년 200kg)	16만
소계		248만	291만 8천	(43만8천)	337만5천	(89만4천)	380만8천	(132만8천)
식 용 외	사료	9만	11만	(2만)	13만	(4만)	18만	(9만)
	종자	23만	23만	0	23만	0	23만	0
	기타(공업, 손실분)	0	4만2천	(4만2천)	6만6천	(6만6천)	8만2천	(8만2천)

14) 국제지원 계산은 현재 올해의 생산량 280만톤 기준 여기에 보충 흡산하는 식으로 계산함.

예) 50만톤 지원시 3순위 배급 대상 400만명에게 150g을 지급할시 3순위 대상은 1일 400g을 먹게됨. 이를 고려한다면, 대량탈북을 했던 4순위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을 때 지원식량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당연함.

① 280만톤의 식량생산

- 3순위 : 6개월치 공급분량(1일 250g) / 400만명 심각한 영양실조, 일부 아사 위기
 - 4순위 : 3개월치 공급분량(1일 100g) / 600만명 중 200만명은 장사 또는 소토지 생산으로 자력 갱생, 800만명 아사 위기
- 실재 아사자 100만명 이상 발생가능

②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50만톤 지원을 받을 때 - 330만톤(외국지원 50만톤)

- 3순위 400만명 영양실조
 - 4순위 600만명 중 400만명 아사위기
- 실재 아사자 50만명 이하

③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100만톤 지원을 받을 때 - 380만톤(외부지원 100만톤)

- 4순위 600만명 중 400만명 심각한 영양실조 이 중 일부 아사위기
- 아사자 10만명 이하

④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150만톤의 지원을 받을 때 - 430만톤(외부지원 150만톤)

- 4순위 600만명 중 400만명 영양실조
- 대량 아사멈춤

아사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량을 포함한 식량공급량이 영양부족상태인 총 450만톤까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자체생산량 280만톤과 평년과 거의 비슷한 중국에서의 지원량 20만톤, WFP 지원량 7만5천톤으로 산정시, 총 307만 5천톤에 그침.

적어도 150만톤의 지원이 있어야만 대량아사를 막을 수 있고 최소한의 영양부족상태에 머물게 됨.

영양부족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량 520만톤 중 국내 총공급량과 중국과 WFP 등 외부지원 27만 5천톤을 제외하더라도 212만톤이 필요함.

- 대량아사를 막기 위한 외부지원시 총 150만톤일 경우에는 미국이 50만톤, WFP등 국제사회가 50만톤, 한국이 50만톤을, 총 100만톤 지원할 경우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50만톤, 한국이 50만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 곡물의 종류는 배분 4순위까지 내려가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인도적 지원시 만약 쌀 50만톤 지원의 경우

1순위 - 3만 7천톤(600g) / 2순위 - 5만4천톤(600g) / 3순위 - 21만9천톤(400g)

4순위 - 12만 7천톤 / 사료 2만톤 / 기타 4만4천톤

따라서 4순위에 돌아가는 량이 옥수수를 지원했을 때보다 적어지므로 4순위 사람들은 대부분 배급을 받지 못함.

그러므로 50만톤 이하의 적은 량을 지원할 때에는 쌀을 주게 되면 1, 2순위에 일부(9만톤정도)가게 되어 4순위에 분배되는 량이 적어지므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100만톤 이상 많은 량을 지원할 때에는 옥수수, 쌀 특별히 구분이 필요없이 아래 분배 순위까지도 내려감.

- 표에서 보면 600만 인구 중 소토지 분배를 받고 경작을 하는 300만 인구와 장사를 한다고 추정되는 100만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인구가 1차적인 대량아사의 위기에 노출됨.

다음으로 소토지 생산자 중 어려운 사람과 가장 낮은 단위의 장사를 하는 200만명이 2차 아사위기에 있음. 나머지 200만 정도는 배급 3순위보다 생활수준이 높음. 이들 1,2차 아사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으로는 하층은 아니나 현재 배급시스템이 아닌 자력갱생의 구조에서는 경작지도 없고 장사도 못하는 이들이 사실상 “식량문제에서의 취약계층”이 됨.

의사, 교양원, 교원, 작은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경우는 장사도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단위에서 경작할 땅도 없고 배급도 못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는 바로 아사 위기에 노출됨.

(표-7) 곡물생산량 추산에 따른 식량분배 및 인도적 상황

순위별 배급량		총곡물 생산량	640만톤	520만톤	430만톤		280만톤	
			상태	국제기준정상량 - 여유있는 배급기준 ¹⁵⁾	국제기준 최소량- 정상배급 ¹⁶⁾	평년 생산량 - 영양 부족상태		올해 생산량 - 대량 아사위기
식 용	1순위 (100만명, 5%)	27만톤 (1일 800g)	27만톤 (1일 800g)	25만톤 (1일 700g)	21만9천톤 (1일 600g)		18만2천톤 (1일 500g)	
	2순위 (150만명, 7%)	44만톤 (1일 800g)	44만톤 (1일 800g)	44만톤 (1일 800g)	38만3천톤 (1일 700g)		27만4천톤 (1일 500g)	
	3순위 (400만명, 20%)	102만톤 (1일 700g)	102만톤 (1일 700g)	88만톤 (1일 600g)	58만4천톤 (1일 400g)	⇒ 영양 부족 상태	36만5천톤 (1일 250g)	⇒ 심각한 영양실조
	4순위 (600만명, 30%)	131만톤 (1일 600g)	131만톤 (1일 600g)	88만톤 (1일 400g)	65만7천톤 (1일 300g)	⇒심각한 영양실조	21만9천톤 (1일 100g)	⇒ 아사
	농민 (800만명, 40%)	200만톤 (년250kg / 1일 680g)	200만톤 (년250kg / 1일 680g)	160만톤 (년 200kg / 1일 547g)	160만톤 (년 200kg/ 1일 547g)		144만톤 (년 180kg/ 1일 500g)	
소 계		504만톤	504만톤	405만톤	344만3천톤		248만톤	
식 용 외	사 료	28만톤	28만톤	18만톤	18만톤		9만톤	
	종 자	23만톤	23만톤	23만톤	23만톤		23만톤	
	기 타 (공업, 손실분)	85만톤	85만톤	74만톤	44만7천톤		-	

15) 유엔보건기구(WHO)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1일 2,130kcal로 설정. 그러나 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대상국가로 취급, 유엔이 권장하는 최소에너지 섭취량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 농민의 경우는 식량'배급'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생산자로서 정해진 '분배'를 받으며 노력공수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분배를 받음.

4. '고난의 행군' 시기의 대량아사와 '제2 고난의 행군' 시기의 대량아사의 차이점

- 90년대 중반의 대량아사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들이 "맥없이" 죽었다면, "제2 고난의 행군"의 경우는 당시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있음.

90년대는 국내에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반면 최근의 경우 국내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국경이동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해진 것으로 보임. 1차 고난의 행군시기 대량탈북을 경험한 북한은 국경봉쇄와 강화정책을 취하고 있음.

주민들의 경우에도 식량난에 대한 지구력과 내구성이 있으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식량확보나 한국의 친척이나 중국으로 탈출한 친인척을 통한 도움을 받고 있고 외부정보에 상대적으로 민감해짐. 내구력과 생존력의 강화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민심이반은 어떤 형태로 발현될 지 예측하기 어려움.

배급시스템에서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는 시장을 통한 장사나 식량확보 등의 지구책 등으로 과거와 같은 순식간의 대량아사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봄. 단지 식량값이 폭등하고 쌀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대량아사의 징조로 보여짐.

이미 식량가격이 추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임.

1990년 중반보다 더 어려우리라 예상되는 것은 외부지원의 전면 중단, 에너지 부족(미국으로부터 중유 50만톤 중단), 금융제재, 국경 차단 강화 등이며, 1990년대보다 좀 나은 것은 자생력 강화, 국내이동 용이, 인구감소, 외부정보 유입, 탈북자곡 송금 등이 있음.

5.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 인도적 위기와 대량아사의 시기에는 시간이 가장 절박함

올해의 북한의 식량생산과 최근 북한사회는 인도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이것이 북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며 오히려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핵실험이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불안 요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의 인도적 위기 또한 사회불안 요인임.

1,600kcal(연간 167kg)를 식용소요량으로 추정함. 이밖에 사료용, 종자용, 수확후 손실 등을 감안하여 북한의 식량 총소요량을 추정하고 있음. 세계식량계획은 2005/2006년 양곡연도의 인구를 23,942,000명으로 추정.

북한이 식용을 포함하여 640만톤을 곡물수확량으로 생산한다면 유엔의 1일 정상권장치에 해당하는 분배가 가능함. 이러한 수치는 현재의 북한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배급'이라기보다는 '여유있는 배급'에 해당함.

16) 유엔권장량으로 볼 때는 절약상태의 배급기준이나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배급'의 상태임.

따라서 우리 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과 대량아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특히 배급이 되지 않는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식량가격의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큰 지표가 될 것임. 4순위의 사람들은 내년 1,2월까지밖에 식량확보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제2 고난의 행군’을 준비한다는 북한내부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대량아사의 위험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대량아사를 미연에 막을 준비를 해야함.

특히 우리가 북한의 대량아사 상황에 직면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인도적 위기, 대량아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을 결정하고도 실제로 지원식량이 도착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됨.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굶어죽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생명의 연장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와 대량아사 가능성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경각심과 공감, 철저한 대비책과 준비는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왔음.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수백만의 목숨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었고 그로 인해 병들어 죽었음.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대량아사로 이어진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자체의 생산량의 부족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그러나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북한 자체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므로 외부의 지원이 가지는 중요성과 책임이 커짐.

V. 맺으며

인도적 지원은 전쟁을 하는 상황 하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다. 그런데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도적 위기를 외면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고 뒤늦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주민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죽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북한정부가 아사위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들 또한 현지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상태였다. 또 남북 북미간 적대관계로 인해 이런 인도적 위기를 외면했다. 뒤늦게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간의 인도적 지원은 명백하게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대북인도적 지원은 대량아사를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정부가 아무리 통제하더라도 북한 사회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대량아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2월초 미 국무성 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케서린 스티븐스와 USAID 북한담당관 존 브라우스를 만

났다. “북한식량위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의 성사여부와 UN제재결의와는 무관하게 오직 인도적 상황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량의 식량지원도 할 용의가 있다”도 밝혔다. 다만 지원한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미국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모니터링만 허용한다면 미국은 식량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제 북한정부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모니터링을 허용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정부는 수해피해 상황, 식량생산량, 식량부족상황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신속히 인도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 진보 보수 세력 등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떠나 북한주민의 대량아사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합의 결정해야 한다.

또한 UN, EU,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도 대북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위기 대량아사로 이어질까?

강재혁 (데일리 NK 기자)

2007년 북한의 식량난

A. 북한의 농업생산에 평가(외부)

북한 식량 내년 75만 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

세계식량계획의 장-피에르 드 마르주리 평양사무소 대표는 북한이 올해 흉작과 원조 감소로 약 7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쌀과 옥수수 등 올 가을에 수확한 식량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보유 식량이 고갈되는 내년 4월쯤에는 식량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고 장 피에르 대표는 밝혔습니다.

피에르 대표는 또 북한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올해 530만 톤의 식량 생산이 필요했지만 430만 톤 생산에 그쳐 100만 톤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식량부족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다각적인 원조와 중국, 한국의 지원을 통해 버텨왔지만 올해는 이 같은 경로를 통한 식량 지원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에르 대표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식량 지원이 지난해 약 30만 톤이었지만 올해는 만 5천 톤에 그친데다 한국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이후 식량지원을 중단했고, 중국의 식량 수출도 1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액은 75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또 한번 흉작이 발생하고 식량 수입이나 지원이 현재 수준 정도로 지속되면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피에르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B. 북한의 농업생산에 평가

이미 겨울이 시작된 북한은 지금 어느 때보다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 특히 지난 여름 수해로 북한의 자체 식량생산이 90년대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 북한의 방송 보도 내용 종합

- 평남의 의 양덕, 맹산, 북창, 덕천, 함남의 요덕, 금야, 정평(집중호우).
- 강원도의 원산, 통천, 안변, 평강
- 황남의 해주, 용진, 룡연, 봉천, 배천, 강령, 연안지방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100mm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려 농경지가 심하게 침수되었음
- 일부 지방에 내린 무더기비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음.(월간 북한동향 제796~799호 2006. 6.30~2006. 7.27)

위에서 보듯이 함흥 이남의 중요 쌀 생산 지역이 홍수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특히 황해남도의 홍수피해 지역은 북한의 쌀 생산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것은 벼 생산량의 적지 않은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외부지원이 중단된 지금 북한은 이번 겨울이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가장 엄혹한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을이 되면 쌀을 비롯한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 대신 석탄, 나무 등 겨울 난방용 땔감 가격이 경총 뛰어 올라 서민들은 추위에 시달린다. 그러나 올 가을에는 오히려 식량가격이 올랐고 여전히 땔감은 부족해 북한 주민들은 예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 北 식량부족, 어느정도인가

북한의 정상 식량 수요량은 보리, 옥수수, 감자 등을 포함하여 연간 650만t(1인당 하루 2천130kcal) 정도다. 국제기구에서는 최소 식량 수요량으로 520만t(1인당 하루 1천 600kcal 섭취)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량은 풍년으로 평가된 지난해의 경우 450만 톤에 불과해, 150~200만 톤 가량이 부족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매년 남한이 50만 톤, 중국에서 20~30만 톤(유상지원 포함), 세계식량계획(WFP)이 20만 톤을 지원해, 북한의 식량부족분 중 100톤 정도를 충당해왔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남한은 미사일 발사 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전면 유보하고 수해지원 명목으로 현재까지 쌀 9만 톤을 북한으로 보냈다. 중국도 상반기까지 곡물 10만 톤 정도를 전달했을 뿐이다.

세계식량계획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 중단 요청에 따라 올해 중반부터 향후 2년 동안 1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량 지원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금년 여름 수확한 보리, 밀, 감자 등의 수확량은 예년 수준이지만, 가을에 수확하는 쌀과 옥수수의 작황은 수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작년보다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기구들은 올 여름 발생한 수해로 인해 식량 10만 톤의 생산이 줄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농지유실 등의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이 상태로 계속 줄어든다면 북한은 식량 수요량의 60~70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 주민들에게 느껴지는 식량위기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식량원조가 줄어들어 10월 장마당 쌀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1kg당 1100원까지 급등했다.

11월 20일 현재 쌀가격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듯 하나, 외부에서 쌀 지원이 중단될 경우,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외부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는 세관원과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이미 쌀 사재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상태로 북한 주민들이 그럭저럭 겨울은 넘긴다 하더라도 봄이 오면 늘 오는 '노란 봄철'(먹지 못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현상)을 또 맞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더 지탱할 힘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90년대 대기근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북한당국은 군사우선주의 노선과 집단영농제를 바꾸지 않은 경제 실정에 있었다. 여기에 흉수까지 덮쳤다.

여기에 모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 배급제가 골고루 진행되지 않았다. 간부들과 그들을 통한 일부 사람들이 배급을 받아 폭리를 취했고 양정부문의 비리가 심했다.

따라서 식량배급을 먼저 앞당겨 받은 사람들은 돈을 모았고 식량 배급을 전혀 거의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 90년대 같은 '대량아사' 발생할까?

지난 21일 국제적십자연맹의 잭 티머 평양사무소 대표는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식량과 연료부족이 현재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면서 “올해 북한주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인권운동가 팀 피터스씨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90년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의 생명을 앗아간 기근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더라도 90년대와 같은 대량아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90년대 식량난 시기 국가만 의지하고 있던 주민들은 배급제가 무너지자 속수무책으로 그 자리에서 굶어죽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대부분 붕괴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은 개인 장사와 소토지(개인 밭) 경작을 통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해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는 적지 않지만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소토지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생산량은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소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올해 함경북도의 소토지에 심은 옥수수가 예년보다 잘되었다는 현지 주민들.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가축을 키워 수입을 올리는 등 주민들의 돈벌이 수단도 다양해졌다. 남한에 정착한 가족이나 중국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주민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배급이 끊겨 10년 이상을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는 수해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와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한 외부로부터 지원이 끊겨도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키웠다.

따라서 90년대와 같은 식량위기로 인한 대량 아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7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2005/06 양곡연도의 식량 수급 상황

□ 북한 내 식량 생산

- 2005년 10월부터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을 강화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공공비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2006년 봄부터 식량배급이 감소하기 시작함.
 - 식량배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곡물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식량배급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식량거래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춘궁기 시장의 식량가격 안정을 위하여 식량 비축량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공공비축 식량 방출을 통한 시장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은 향후 식량수급 불안정이 커질 것으로 예측함.
 - 식량배급 감소와 함께 시장의 곡물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을 보이고 있음.
 - 연초와 가을 수확 직전을 비교할 때 쌀과 밀가루 가격은 kg당 50~100원 정도 상승하였는데 그쳤으나 옥수수는 kg당 200원 정도 상승함으로써 상승률이 쌀과 밀가루에 비해 높았음.
 - 콩과 돼지고기 가격은 쌀이나 밀가루 가격 상승과 비슷한 추세임.
 - 쌀과 돼지고기에 비해 옥수수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식량안보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와 무관하지 않음.

- 북한 당국은 2005년 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이후 특히 식량수급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시장의 가격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과 여러 차례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한 결과 2006년 중반부터 2008년 중반까지 2년 동안 15만 톤의 식량을 지원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의 새로운 대북 식량지원계획에 의하면 지원 대상자는 이전의 64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감소하고 대상지역도 과거 160개 군에서 30개 군으로 축소 됨.
 -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급감하여 현재까지의 식량지원 실적은 90만 달러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총액도 2,000만 달러에 불과함.
 - 2006년에는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식량 사정은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농촌진흥청은 2005년의 북한 식량생산량을 454만 톤으로 추계하여 전년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의 북한 자체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 여름에 수확한 밀, 보리, 감자의 생산량에 대한 추계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고 기상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2005/2006 양곡연도의 식량 생산량은 450만 톤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음.

표 1 농촌진흥청의 2005년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

작 물	2004년 생산량 (1,000톤)	2005년			비 고
		면 적 (1,000ha)	수 량 (톤/ha)	생산량 (1,000톤)	
쌀	1,800	584	3.46	2,020	전년 대비 생산량 5.3% 증가
옥수수	1,670	526	3.10	1,630	
밀/보리	250	137	1.65	230	
콩	130	135	1.23	170	
잡곡	10	25	0.74	20	
감자	450	201	3.41	470	
계	4,310	1,608		4,540	

□ 식량 수입 및 외부 지원

- 2006년 상반기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은 2,565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2005년 북한은 중국에서 32.7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이 외에도 밀가루 등

11.3만 톤, 콩 4만 톤 등을 수입함으로써 총 48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였음.
- 상반기의 수입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은 전년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북한은 타이에서 1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며 2006년에도 비슷한 양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은 외부의 식량지원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상업적 수입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중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크게 감소함.

- 한국은 2006년 7월 평안남도 일대에 발생한 수해 긴급지원으로 10만 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계획하고 이 중 9만 여 톤을 수송 완료하였으나 핵실험 파장으로 나머지 1만 톤에 대한 식량지원은 보류하고 있음.

- 북한은 금년 50만 톤의 쌀을 지원해 주도록 한국에 요청하였으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여파로 성사되지 못함.

- 세계식량계획은 2006년 중반에서 2008년 중반까지 2년 동안 총 15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원조가 감소하여 12월 19일 현재 163만 달러 모금에 그침.

-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은 11만 여 톤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06년 12월 19일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총액은 2,258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2,018만 달러(이중 1,000만 달러는 한국, 나머지는 유럽연합)로 2005년의 4,600만 달러의 절반 정도이며 2004년의 3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감소하였음.

○ 따라서 2006년 중 북한의 상업적 수입과 지원을 합하여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식량은 50여 만 톤으로 전망됨.

□ 2005/06년 북한의 식량 총공급량

○ 2006년 북한의 식량 총공급량은 500만 톤 정도로 추정됨.

- 자체 생산 450만 톤

- 상업적 수입 및 지원 50만 톤

2. 2005/06년 식량 수요 추정

□ 세계식량계획(WFP)

○ 세계식량계획은 주민의 정상적인 식량 수요를 추계하기보다는 군인을 포함한 전체

- 주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식량소요량을 추정 발표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1일 2,130kcal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대상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엔이 권장하는 최소에너지 섭취량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kcal (연간 167kg)을 식용소요량으로 추정
 - 이 밖에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등을 감안하여 북한의 식량 총소요량을 추정

- 세계식량계획은 2004/05양곡연도의 중간 시점인 2005년 5월 1일의 인구를 23,70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구증가율 1%를 적용할 때 2005/06양곡연도의 인구는 23,943,000명으로 전망됨.
-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인구 전망치는 미국중앙정보국이나 통일부가 추정하는 것보다 80~90만 명 정도 많은 것임.

-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식량 소요량은 크게 식용,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및 기타용으로 분류
- 식용 소요량은 추정 인구예다 1인당 연간 최소소요량 167kg을 곱하여 3,998,000톤
- 사료용 180,000톤(북한당국의 추정치)
- 종자용 230,000톤(ha당 정곡 기준으로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625kg 적용)
- 수확 후 손실과 기타 용도는 각각 15%, 3%를 적용하여 810,000톤
- 위의 네 가지 용도를 합산하면 2005/06양곡연도의 곡물 수요는 5,218,000톤으로 전망

□ 통일부

-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수요를 추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의 식량소요량을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 기준은 1인당 1일 2,130 kcal, 연간 222 kg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 북한의 인기도 WFP보다는 낮게 추정함.
- 예를 들면, WFP는 2003/04년의 연도 중간(2004.5.1) 인구를 23,542천 명으로 추정하는 데 비해 통계청은 2004년 7월 1일의 북한 인구를 22,709천 명으로 추정함으로써 833천명의 차이가 있음.
- 통계청은 2004년 7월 1일의 북한 인구를 2,270,900명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연간 인구증가율을 1%로 가정할 경우 2005년의 추정 인구는 22,936천 명, 2006년은

23,165,000명으로 추정됨.

- 통계청이 추정한 북한의 2006년 연도 중간 인구는 WFP가 추정한 것보다 778,000명이 더 적음.

○ 이러한 추정방식에 따라 2006년의 북한 식량소요량을 추정하면 식용소비량만 5,143,000톤이 필요하고 여기에다 사료용, 종자용, 감모 등을 포함할 경우 6,483,0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식용 소요량은 연도 중간 추정인구 23,165,000명에다 1인당 소요량 222kg을 곱하여 5,143,000톤
- 사료용은 연간 300,000톤(2000년 수준과 동일)
- 종자용 230,000톤(세계식량계획과 동일)
- 수확 후 손실 및 기타용도를 각각 15%, 3% 적용하면 810,000톤
- 위의 네 가지 용도를 합산하면 2006년의 북한 식량 소요량은 6,483,000톤으로 전망됨.

□ 미국

○ 미국은 북한의 식량 수요량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WFP와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음.

○ 미국중앙정보국은 2006년 7월 기준 북한의 인구를 23,113,019명으로 추정하므로 전년 같은 시점보다 200,842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연간 인구증가율 0.84%를 적용한 것이어서 2004년의 0.98%, 2005년의 0.9%에 비해 낮은 것임.

○ 미국의 대부분 보수적인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식량수요를 통일부가 추정하는 방식인 정상소요량이 아니라 세계식량계획이 추정하는 최소영양섭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추계인구는 세계식량계획이 추정하는 것보다 더 적기 때문에 식량 소요량도 더 적음.

- 미국중앙정보국이 발표한 2006년의 북한 인구에다 세계식량계획이 적용하는 1인당 식량소비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연간 식량 소요량은 5,080,000톤으로 추정됨.

표 2 기관별 2005/06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소요량 추정치 비교

단위 : 정곡 1,000톤

용도		추정기관			비 고
		통일부	세계식량계획	미국농무성	
인구(천명)		23,165	23,943	23,113	연도 중간 인구
용 도 별	식 용	5,143	3,998	3,860	기타는 수확 후 손실 15% 및 기타용도 3%
	사료용	300	180	180	
	종자용	230	230	230	
	기 타	810	810	810	
	합 계	6,483	5,218	5,080	

3. 2005/06년도의 식량 수급 종합 평가

□ 식량공급

○ 북한 자체 생산

- 세계식량계획, 미국농무성, 농촌진흥청의 2005/06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 전망을 종합할 때 감자를 포함한 자체 식량생산량은 450만 톤 정도로 전망함.

○ 상업적 수입 및 외부 지원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무상지원 30만 톤
- 상업적 수입 10만 톤
-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 10만 톤
- 계 : 50만 톤

○ 2006년 북한의 식량 총공급량은 500만 톤 정도로 추정됨.

- 자체 생산 450만 톤
- 상업적 수입 및 지원 50만 톤

□ 식량수요

○ 최근 북한 주민의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고급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곡물 위주의 에너지 섭취라는 점에서는 추세적 변화라고 할 수 없음.

- 최근 몇 년 동안 옥수수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쌀 가격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식품 소비가 고급화되는 추세임.
- 밀가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외식 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정 부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란 가격도 안정되는 등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축산물 소비도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국가 전체의 식량 소비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개별 가구 사이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함.

- 계층 간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품목 간 가격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결과 북한 당국은 시장의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시장 가격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쌀 가격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함.

- 만일 우리나라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시장의 쌀 가격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시장 구조로 보아 시장의 식량 공급이 감소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품목 간 대체수요가 발생하여 식량 가격의 불안정이 크지 않겠지만 공급 부족이 좀 더 지속될 경우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남으로써 물가 불안이 가시화될 것임.

□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시사점

○ 공급 측면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은 전년에 비해 악화됨.

- 북한의 자체 식량생산량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때문에 전년에 비해 5% 정도 증산되었음.

-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인도적 무상지원이 감소된 것도 식량 공급 사정을 악화시킨 요인임.

- 특히 한국의 대북 식량 차관이 중단된 것이 식량 공급을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임.

○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한 곡물 거래를 중단시키고 배급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어서 국가 수준의 식량 수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640여만 명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식량 사정이 어려운 실정임.

- 북한 당국은 배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만큼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식량거래 단속을 지속할 경우 취약계층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식량 수요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수요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별 가구 차원에서는 계층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우등재인 쌀과 열등재인 옥수수의 시장 가격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에 따라 식량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싼 옥수수 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식량배급의 감소로 인하여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됨.
 - 시장 가격 동향을 관찰할 때 현재까지는 식량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식량 공급이 줄어들 경우 가격 상승 움직임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음.
 - 시장의 가격 불안정에 대해 북한 당국은 과거에 비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북 식량 지원 여부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식량 차관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 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남.
 - 시장에서 한국산 쌀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중단되면 고급 쌀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임.

4. 2006/07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 북한의 식량생산량 전망

- 2006년 1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결정 제122호 문건에 의하면 일부 농업 부문 간부들이 농업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개인 사취한 데 대해 황해남도 도당 농업담당비서 조병석 등 13명을 처벌키로 하였다고 함(중앙일보, 2006. 12. 4).
 - ① 재고조사 결과 식량 생산량이 210만 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350만 톤으로 보고하였거나 ② 실제 생산량은 350만 톤이 맞으나 개인 사취 등으로 인해 현재 재고량이 210만 톤에 불과할 수도 있음.
 - 세계식량계획(WFP)이나 농촌진흥청(RDA)의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치 동향에 미루어 위의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후자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만일 금년 가을 북한의 알곡생산량이 350만 톤이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자 및 잡곡 378,000톤(잡곡 120,000톤, 감자의 알곡환산량 258,000톤)과 내년 초여름에 수확할 예정인 이모작 생산량 485,000톤(밀·보리 230,000톤, 감자 255,000톤)을 합치면 2006/07 양곡연도의 식량생산량은 436만 톤으로 전망됨.
 - 이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05년 식량생산량 454만 톤과 비교할 때 4% 가량 감소한 것으로 금년 여름의 수해와 후속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예측치임.

□ 우리나라의 식량 차관이 중단될 경우

○ 식량공급

- 자체 생산 : 430~440만 톤(예상)
- 중국으로부터 도입(유·무상) : 20~30만 톤
- 기타 국제사회(WFP 등) 지원 : 10만 톤
- 총 공급량 : 460~480만 톤

○ 식량수요(식용, 사료용, 감모)

- 최소소요량 기준 : 530만 톤
- 정상소요량 기준 : 650만 톤

○ 식량 수급 전망

- 최소소요량 기준 : 50~70만 톤 부족
- 정상소요량 기준 : 170~190만 톤 부족

※ 정상 소요량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인당 1일 2,130kcal 섭취를 기준으로 함.

※ 최소 소요량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인당 1일 2,130kcal의 75%인 1,600kcal 섭취를 기준으로 함.

○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될 경우 2006년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보리/밀)과 2007년 봄에 파종하는 작물(감자)의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2007년 여름 이후의 식량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가을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2007/08 양곡연도의 식량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됨.

□ 현실적 전망

○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2007년 7월까지는 상당한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심각한 식량난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2006년 가을에 수확한 쌀과 옥수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 6-7월에는 금년 가을에 파종한 곡물(보리/밀)과 2007년 봄에 파종할 감자를 수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7년 8월 이후에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 국가 수준의 식량 수급만을 감안한다면 본격적인 식량난은 2007년 8월 이후 발생하지만 모든 주민에게 식량이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식량난은 사실상 내년 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

- 식량의 수급 자체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식량배급제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의 식량가격 상승은 대부분의 주민에게 고통을 주게 됨.
 - 2006년 가을 수확 이후 시장의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따라서 시장에서 곡물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일반 주민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식량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식량 가격이 더 올라갈 경우 구매능력 자체가 없어지게 됨.
 - 시장의 곡물가격 상승은 사회 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식량 수급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 압력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함.

5. 대북 비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식량 지원 및 비료 지원이 모두 중단될 경우
(2007/08년 식량 수급 전망)

- 식량공급
 - 자체 생산 : 350만 톤(예상)
 - 중국으로부터 도입(유·무상) : 20~30만 톤
 - 기타 국제사회(WFP 등) 지원 : 10만 톤
 - 총 공급량 : 380~390만 톤

- 식량수요(식용, 사료용, 감모)
 - 최소소요량 기준 : 530만 톤
 - 정상소요량 기준 : 650만 톤

- 식량 수급 전망
 - 최소소요량 기준 : 150~160만 톤 부족
 - 정상소요량 기준 : 270~280만 톤 부족

- 우리나라의 식량 차관은 계속되지만 비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2007/08년 식량 수급 전망)

- 식량공급
 - 자체 생산 : 350만 톤(예상)
 - 중국으로부터 도입(유·무상) : 20~30만 톤

- 기타 국제사회(WFP 등) 지원 : 10만 톤
-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 : 50만 톤
- 총 공급량 : 430~440만 톤

- 식량수요(식용, 사료용, 감모)
 - 최소소요량 기준 : 530만 톤
 - 정상소요량 기준 : 650만 톤

- 식량 수급 전망
 - 최소소요량 기준 : 90~100만 톤 부족
 - 정상소요량 기준 : 210~220만 톤 부족

□ 비료는 농자재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음.

- 비료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자재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이 농업 부문을 관리하고 농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임.
 - 통상 화학비료 1톤을 추가로 투입하면 식량 2~3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 같이 비료 사용량이 많지 않을 경우 증산 효과는 더 큼.
 - 북한 당국이 비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경우 협동농장은 식량의 목표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으며 해당 협동농장에 소속된 주민의 식량분배량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농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만일 중앙정부가 각 농장에 비료마저 배정할 수 없다면 농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일시에 무너질 것이고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중요한 통제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임.

북한의 식량위기 가능성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김영희 (새터민)

남한에서는 다이어트 바람에 주민들 일상이 하루 2끼 먹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주민들은 식량살 돈이 없어 하루 두끼, 그것도 옥수수죽이나 5:5잡곡밥을 먹고 있다.

1. 북한 식량난의 새로운 양상

10년을 주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90년대 중엽의 고난의 행군시기와의 비교 관찰이 필요하다.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오늘날 북한사회에 도래하는 식량사정의 3대요인

첫째, 북한 식량 수요량 대 생산량의 절대적 부족

둘째, 외부지원의 단절

셋째, 외화난으로 인한 식량수입활동의 저하

2) 90년대 식량난과 비교

첫째나 둘째 경우는 90년대와 유사한 현상이고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현상이다. 세 번째 경우가 새로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는 유엔안보리결의로 인해 대북제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금융제재나 북한선박단속으로부터 시작하여 백도라지나 위폐와 같이 북한 정권이 이용하던 합법적 및 불법적인 외화벌이 수단들의 기능저하를 들 수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은 외화난이 오늘날 식량난을 부추기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90년대는 벌어들인 외화를 금수산기념궁전이나 백두산 건설, 전쟁비축물자로 사용 할 정도로의 외화유통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외부에서 외화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 90년대에 비해 2중, 3중의 외화난을 겪고 있는 셈이고 이것이 식량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 전망

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 1) 북핵문제 해결의 장기화로 인한 안보리제재
- 2) 북한지원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증대
- 3) 북한의 알곡생산 시스템운영의 한계

90년대 중엽과 같은 대량아사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본다.

- 1) 고난의 행군이후 기근상황에 대처한 북한주민들의 생존방식의 형성
- 2) 북핵문제로 인한 유인책의 존재
- 3) 식량난에 대한 북한정권의 대처능력

3. 대책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양상의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전환되어야 한다.

- 1)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통치자의 수혜공간, 체제선전공간으로 이용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작년도 민주평통 자문회의 뉴욕협의회에서 5컨테이너 분 39만개의 라면을 보낸 기사를 보았는데 북한의 일반서민들에게는 차례지질 않는다.
 - 남한의 비료지원과 같은 지원물자들의 경우도 알곡생산에 유리한 토질, 운행조건을 가진 단위들에 공급되지 않고 청산협동농장과 같은 북한이 통치자의 치적을 선전하는 북한말로 하면 현지지도단위들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
 -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현지지도, 사적단위들에 지원되는 영농물자들을 적기에 많이 특수 분배하고는 정권이 하리는 대로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농사에 헌신하고 있기에 높은 알곡생산을 거두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 2) 기득권층들의 비자금조성공간으로 이용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 3) 북한의 비기득권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06년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여러 견해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북한에 필요한 최소 식량규모에 대한 여러 견해
 - WFP 등 국제기구에서는 북한 인구 2300만 명에게 필요한 식량수요량(쌀, 보리, 옥수수, 감자 포함)을 650만 톤이 간주한다(1인당 하루 2,130Kcal).
 - 통일부에서는 530만 톤이 북한에게 최소 필요식량이고 650만 톤은 축산에 필요한 곡물까지 감안한 규모라 해석한다.

- 식량생산량에 대한 여러 견해
 -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22일 북한의 2006년도 곡물 총 생산량이 2005년에 비해 1.3% 감소된 448만톤(05년은 454만톤)으로 추정, 발표했다.
 - 내역을 보면 이중 쌀은 189만톤, 옥수수는 175만톤, 두류(콩)는 16만톤, 서류(감자)는 45만 톤, 맥류(보리와 밀) 및 기타 잡곡 25만톤이 생산됐다.

 - 국제기구와 통일부
세계식량계획의 장-피에르 드 마르주리 평양사무소 대표도 "북한은 올해 530만 톤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430만 톤에 그쳐 식량이 크게 부족하다"며 "북한이 앞으로 몇 개월은 이번 가을에 수확한 식량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보유 식량이 바닥나는 내년 4월에는 식량 부족의 영향을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소규모 :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김운근소장은 올해의 실제 생산량을 350만 톤으로 분석하고 있다.
 - 최근 남성욱교수가 입수 발표한 북측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올 알곡생산량이 350만 톤이 아니라 실제조사에 의하면 210만톤에 불과해 처벌했다(진위여부는 불확실함).

 - 북한 당국 의견을 접한 모 단체의 견해의 경우 올 식량생산규모를 490-500만톤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산요인

- 올여름 수재피해 : 식량 감수로는 대체로 10만톤 추정한다.
- 늦여름과 가을 가뭄 : 벼농사에는 싸래기쌀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경기도 농업개발원의 분석관의 견해), 밭작물 피해 심각, 특히 겨울식량이라는 무와 배추가 반타작박에 안된다고 한다.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작물 생육기간인 4월부터 9월의 평균기온이 17.5℃로 평년 17.1℃보다 높았지만, 강우량은 521mm으로 평년 902mm보다 월등히 적었다"고 한다.
- 전반적 평가는 약 20% 정도 감산으로 예상, 즉 작년 식량생산규모를 450만톤에서 430만톤으로 추정하면 350만톤 내외로 보인다.
 - 유니세프의 마이클 버서키우 대변인은 1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올 식량생산은 작년에 비해 20%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북한 관계자는 하루 알곡 1만톤이면 최소한은 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 국제사회의 경고음

- 최근 WFP, 유니세프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일제히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국제정치와는 무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 유엔세프의 마이클 버서키우 대변인은 1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는 식량난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원조국들은 국제 정치문제를 뛰어넘어서 대북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의 장삐에르 두 마르주르 평양사업소 대표는 북한가을에 수확한 식량으로 몇 개월은 버티겠지만 보유식량이 고갈되는 내년 4월부터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에 의하면 벌써 북한의 빈곤층의 노약자 사망소식을 전하고 있고 2월이면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피해를 경고하고 있음,
=> 예년의 경우 굶주림이 심각한 시기를 4-5월 춘궁기 보리고개에서 2월로 앞당겨지고 있고,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참사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북측의 대응

- 북한은 경제난과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상업차관으로 수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모단체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기구에서 중국산 옥수수 20만톤으로 구입 추진중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 중국은 옥수수를 알곡상태로 수출은 제한하고 가루상태로만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안좋은 영향을 입음).
 - 가격폭등 : 톤당 130불에서 150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국제사회의 원조 격감

- 최근 올해는 작년(108만 톤)에 비해 격감하여 최소 50만 톤 이상이 축소되었다.
 - 올 최대원조국인 중국은 북한지원을 국가기밀로 하고 있으나 대체로 2-30만 톤 규모(옥수수)로 추산되고, 한국은 60만(국제기구 10만 톤 옥수수, 50만 톤 차관형태 지원)에서 9만 톤으로 격감, 그 외 국제사회(WFP)는 20만 톤에서 12만 톤 수준으로 축소됨.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영향으로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모두 1억 200만 달러를 모금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목표의 15%에 지나지 않은 등 국제지원단체의 대북지원 모금이 목표량보다 크게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엔아동기금(UNICEF)도 올해 초 대북지원사업에 미화 1120만 달러를 책정했으나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모금액이 목표치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93만 달러에 불과해 일부 주요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 이번 베이징 6자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 향후 당분간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마저 지원을 계속 중단할 경우 내년 2-3월경부터 대규모 아사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취약지역, 빈곤층등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식량 사정 및 전망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북한은 매년 200만톤 안팎의 식량이 부족하며, 이 가운데 100여만 톤 정도를 외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¹⁷⁾

[표] 식량 수급 동향

연도	수요량	공 급 량		부족량
		생산량(쌀)	도입량	
2006	651	454(202)	41	156
2005	645	431(180)	118	96
2004	639	425(172)	76	138
2003	632	413(173)	114	105
2002	626	395(168)	107	124

자료 : 통일부 * 식량회계년도(전년11월 ~ 금년10월) 기준, 단위 : 만톤

– 북한의 최근 3년간 곡물생산량은 한국의 비료 지원과 자체 증산 노력 등에 힘입어 2003년 425만 톤(쌀 172만 톤) → 2004년 431만 톤(쌀 180만 톤) → 2005년 454만 톤(쌀 202만 톤) 규모로 증가세를 보여 왔음.

– 그러나 실제 대다수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식량사정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함(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인터뷰 조사결과, 2006.12)

○ 북한은 특히 중국(20-30만톤), 한국(50만톤)과 WFP로부터 다각적인 원조와 지원을 받아옴. 그러나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대북 원조와 수입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 지난해 약 30만 톤이었으나, 올해는 1만 5천 톤에 그친데다, 한국은 7월

17)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비료의 공급 수준에 상당 수준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비료 수요량은 155만톤 정도이나, 생산량이 50만 톤에 미치지 못해 자체 생산만으로는 연간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실험발사 이후 식량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고, 중국의 식량수출도 1년 전의 1/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¹⁸⁾

- 올 8월 기준으로 외부지원 및 자체 수입이 40여만 톤에 불과하고, 7월 수재로 인해 곡물생산량 추가 감소가 예상되어 향후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지난 여름 수해로 유실된 농경지가 많아 농사를 망쳤고, 국경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농사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¹⁹⁾

- WFP는 3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되면서 10만 톤 정도의 식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WFP는 내년 1월 가장 혹독한 추위가 닥치는 때 식량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²⁰⁾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한의 대북 비료지원이 내년 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밖에도 팀 피터스(미국 인권운동가), 잭 티머(국제적십자연맹 평양사무소대표), 알리스테어 헨리(국제적십자연맹 동아시아 담당 국장)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핵실험이후 북한의 식량 및 연료부족이 현재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다만, 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의 기상과 병해충 발생 현황, 비료 등 농자재 공급사정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 내 곡물 총생산량이 지난 해 454만 톤에 비해 6만 톤 정도만 감소한 448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o 시장 상황 : 곡물은 시장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공식 배급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함.²¹⁾
(지난 해 10월 북한 당국의 배급제 복귀 및 장마당 식량판매 금지조치가 이뤄짐)

- 사회적 약자나 일반 주민들의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상당수 주민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직접 구입해 왔으나, 최근 식량 원조나 수입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통한 식량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다만 주민들이 학습효과에 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해놓은 식량들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기아사태는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8) WFP의 장-피에르 드 마루주리 평양사무소 대표의 발언, 「연합뉴스」(2006.10.18).

19) 좋은 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 소식」 2006년 11월호(제44호), p.1.

20) WFP, Opening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Second Regular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2006, p.5.

21) Kathi Zellweger, 51th DPRK Trip Report, July 18 to 29, 2006, p.2.

사단법인 좋은벗들
Good Friends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1585-16, Seocho-3dong, Seoul, Korea
Tel 02)587-8996
Fax 02)587-8998
goodfriends@jungto.org
www.goodfriends.or.kr